‘세계유산’ 백제 문화는 이렇게 아름다웠네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내년 1월 30일까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

백제의 시조 온조왕 당시 지은 왕궁에 대해 〈삼국사기〉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는 백제 문화와 미의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잊힌 왕국’ 백제는 1970~80년대 이후 발굴이 이뤄지면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익산 왕궁리, 미륵사지 등 8곳의 백제 유적 당 평균 발굴기간은 18년이며, 10개의 조사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57권의 발굴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후 백제 문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이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는 웅진 · 사비기 백제 문화를 총망라하는 자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회에서 이시기 대표 문화재 350건, 1720점을 도성 · 사찰 · 능묘로 구분해 소개한다. 백제를 단독 주제로 한 대규모 특별전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백제 사찰에 대한 전시다. 백제는 중국의 역사서에 ‘사찰과 불탑이 많은 나라’라고 기록될 만큼 불교가 성행했다. 왕실은 주도적으로 사찰을 세웠고 사리를 공양하는 등 불교를 적극 후원했다.

백제지구 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미륵사지 · 왕흥사지 사리장엄 등

국보 · 보물급 유물 1700점 전시

“백제 문화 가치 알리는데 일조”

특히, 발굴이 이뤄진 왕흥사지와 미륵사지의 사리장엄구에는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해 발원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백제에서 국교였던 불교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왕흥사지, 미륵사지, 왕궁리 사리장엄을 처음으로 함께 모아 전시한다. 또한, 사지 발굴을 통해 세상에 나온 소조불상, 기와 등의 문화재도 충실히 만날 수 있다.

도성 전시 부분은 백제 왕궁의 면모와 생활 양식들을 만날 수 있다. 백제는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지형의 특징을 잘 살려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하고 여기에 중국의 도성제(都城制) 요소를 추가한 독특한 도성 구조를 만들었다. 도성 안팎의 성곽, 관청, 창고, 공방, 정원, 화장실, 부엌 등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건물의 구조, 행정 편제와 생활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능묘 전시 부분에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해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 쌍릉 출토품을 소개한다. 1971년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돼 크게 주목받은 무령왕릉은 6세기 전반 중국 남조와 백제, 일본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대표 유적이다.

역사 웹툰 ‘조선왕조실톡’으로 유명한 무적핑크 작가가 그린 ‘백제본기’를 전시장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시가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백제 역사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년 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남겨 줄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별전과 연계한 강연 등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끈다. 올해 12월과 2017년 1월 7일 및 21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11월 29일 개막했으며, 오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 된 다 . (02)2077-9000

신성민 기자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무채색 線으로 완성한 채움과 비움

스페이스 선+, 강은혜 작가 전시회

기하학적 선을 전면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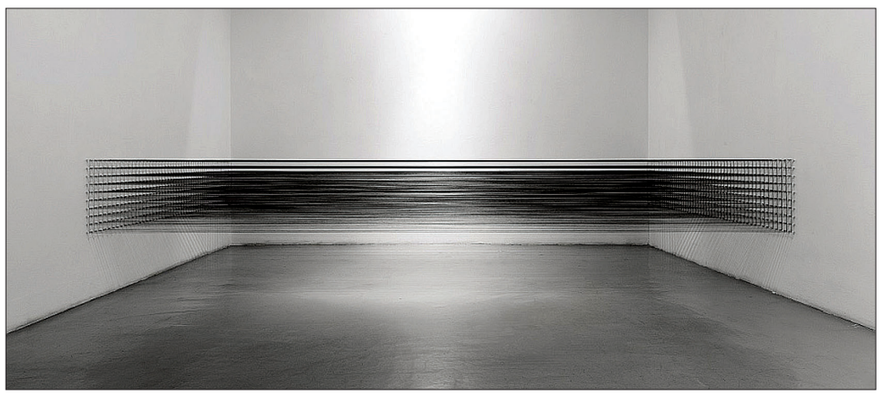
공간 분해 등 독자적인 해석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선을 잇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다. 공간에는 많은 형태들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공간을 선을 통해 재해석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는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강은혜 작가의 ‘채움과 비움(Full or Empty)’ 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선의 이미지를 이용해 건축적 공간의 독자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그는 무채색의 선으로 공간을 분해하고 공간 안에 음의 부피와 밀도를 표현하며, 나눔과 비율의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인 형태와 윤곽을 공간 안에 적용한다.

강 작가의 모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조형언어인 ‘선’과 연결되어 있다. 공간 안에 숨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그 공간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수직 ·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현한다.



강은혜 작가의 작품 ‘Full or Empty No.01’

강 작가는 “점에서 점을 향해 가는 선들은 시간 · 공간적 이동을 상징하며, 어떤 지점에서는 방향을 틀어 과거나 미래를 향해 가기도 한다”면서 “각각의 점들은 개인을 상징하며, 그 사이 연결된 선들은 관계와 소통을 상징한다. 느슨하거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 긴장감을 주체하지 못해 끊어지기도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관계성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작가는 설치작업 동안 실의 텐션을 유지하며 공간을 오갔던 순간을 수행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긴장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로부터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수행의 감정을 평면으로 가져와,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로 ‘면’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명상(Meditation)’ 드로잉 연작이다. 하나하나의 선 긋기로 채워져 나가는 면은 ‘채움’이자 동시에 ‘비움’”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스페이스 선+는 “강 작가는 기하학적 질서를 강조했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처럼, 작업과정에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비율을 적용하여 패턴이나 선들의 조합과 배열로 이미지를 표현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02) 732-0732

신성민 기자

金魚 꿈꾸는 청년작가 한자리에

금어회, 15~21일 불일미술관서 ‘미 · 불’展

작가 12인, 작품 40여 점 선봬

전통 · 창작 불교회화 작품 ‘눈길’

현대의 금어(金魚)를 꿈꾸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미술청년작가협회(회장 호종현, 약칭 금어회)는 12월 15~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미 · 불(未/美 · 佛)’ 전시회를 개최한다.

금어회는 불교 미술을 사랑하는 청년작가들의 모임으로 정 · 준회원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회원 12명이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호종현 금어회장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장인’과 창조력이 중요시되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 주제인 ‘미 · 불(未/美 · 佛)’은 청년 작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며 “아름다움(美)은 불모(佛母)로서 완성이고, 미치지 못했다(未)는 것은 불모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장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 불교회화와 현대적 창작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된다. 사진을 통해 수행자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작품도 있다.



호종현 작가의 작품 ‘사유’

불일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구담 스님은 “금어회는 젊은 불모들의 단체로 불교 안에서 각 전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자신들만의 표현기법으로 자신들의 부처를 그려낸다”며 “올해로 제2회 국내전을 갖지만 그들의 활약상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불교미술의 밝은 앞날을 전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어회는 안정적 협회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불교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만, 체코, 프랑스 등에서 해외 초청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GmSoft GM SOFT since 2015 천수천안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2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수	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401~500명	501~600명	600명초과
추가사용료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명당 11원
합 계	19,800원	21,800원	23,800원	25,800원	27,800원	29,800원	〃
할인 혜택	12개월 결제시 1개월 사용료 할인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